

석사학위논문

제주도 초등학생의 민주시민성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항 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강 경 희

2002년 8월

석사학위논문

제주도 초등학생의 민주시민성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항 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강 경 희

2002년 8월

제주도 초등학생의 민주시민성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항 원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6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제출자 강 경 희

강경희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2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抄錄>

제주도 초등학생의 민주시민성에 관한 연구

강 경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항 원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민주시민성을 조사 분석해 봄으로써 올바른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제주도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민주시민성의 수준을 알아보았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별 응답자의 반응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M), 백분비(%),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다. 배경 변인별 집단 간의 차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평균에 관한 t검정과 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주적 생활태도에서 성 역할에 대한 의식(4.47)과 공존의 윤리(3.83)가 높게 나타났으나 서열의식(2.45), 가족주의(3.31)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민주와 권위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적 생활태도는 학년별로 유의한 차를 보여 5학년이 6학년 보다 민주적 생활태도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민주적 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이념은 3.96으로 전반적으로 민주주의 이념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인간존엄의 태도는 4.47, 평등 4.18, 자유 3.88, 국민주권 3.98로 네 원리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이념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에 개인주의 원리에 대해서는 2.64로 국가와 개인의 문제에서 국가를 우선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태도 수준이 6학년이 5학년보다 높은 것은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민주주의의 절차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결과, 결정의 사전 토의(3.55), 견해의 다

양성(4.11), 비판의 수용(4.15), 다수결의 원리(3.87)에 대해서는 태도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경쟁의 필요성(2.84), 소수자의 권리(3.04), 양보와 타협의 태도(3.16)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엄격한 질서와 안정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경쟁이란 무질서와 불안정을 조장하는 계기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 같다.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태도의 평균은 3.26으로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3.31)이 여학생(3.22)보다, 5학년(3.33)이 6학년(3.19)보다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태도가 바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5학년이 6학년보다 절차적 원리에 대한 태도가 바른 것은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교육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부모의 직업별로는 농·수산업(3.3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 초등학교의 민주시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민주적 생활태도에서는 성 역할에 대한 의식과 공존의 윤리가 높게 나타났으나 서열의식, 가족주의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민주와 권위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여겨지며 민주적 생활태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가정, 대중매체 사회단체 등이 하나가 되어 민주시민교육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다.

둘째, 민주주의의 이념에서 인간존엄의 태도, 평등, 자유, 국민주권 네 원리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이념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어 민주주의 발전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으나 개인주의 원리에 대해서는 국가와 개인의 문제에서 국가를 우선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주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교육방안이 마련되어야겠으며 이에 대한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이루어져야겠다.

셋째, 민주주의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풍토 위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념이므로 타협은 민주주의제도를 운영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의 상호 작용으로 다양한 견해를 비판과 타협으로 타협자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민주주의 이념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내면화되었으나, 경쟁, 타협, 소수자의 권리 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절차적 원리에 관한 인식은 미약하다. 이념적 가치

가 내면화되었더라도 민주실천의 수준이 높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절차적 원리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다. 올바른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민주주의의 절차적 원리를 적용, 실천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학교에서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
II.이론적 배경	3
1. 민주시민성의 의미	3
2. 민주시민성의 구성요소	7
III.연구방법 및 절차	16
1. 조사도구	16
2. 표집	18
3. 자료처리	19
IV. 연구의 결과 및 논의	20
1. 민주적인 생활태도	20
2. 민주주의의 이념	29
3. 민주주의 절차	38
V. 결론	52
참고문헌	58
Abstract	61
부 록	64

표 목 차

표 1. 조사도구	17
표 2.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18
표 3. 배경 변인별 표집인원	19
표 4. 서열의식에 대한 태도	21
표 5. 성 역할에 대한 의식	23
표 6. 공존의 윤리에 대한 태도	24
표 7. 공동체 의식에 대한 태도	25
표 8. 가족주의에 대한 태도	27
표 9. 민주적 생활태도 수준	28
표 10.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태도	30
표 11. 자유에 대한 태도	31
표 12. 평등에 대한 태도	33
표 13. 개인주의에 대한 태도	34
표 14. 국민주권에 대한 태도	35
표 15.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태도 수준	37
표 16. 토론 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	39
표 17. 결정의 사전 공개 토의에 대한 태도	41
표 18. 경쟁의 필요성	42
표 19. 견해의 다양성	44
표 20. 비판에 대한 수용의 태도	45
표 21. 양보와 타협에 대한 태도	47
표 22. 다수결의 원리에 대한 태도	48
표 23.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태도	50
표 24.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태도 수준	51

I. 서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모든 국가의 제도와 정치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제도가 아무리 민주적이라 하더라도 민주적 사회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그 사회의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하여 공유하는 신념과 그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선을 위해서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자제할 수 있는 각성된 의식과 생활규범을 가졌을 때만이 실현된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처한 여건에서 가치 있는 인간 삶의 조건을 개방적으로 탐색하고 실천해 가는 과정이라는 데 대한 공통의 인식과 그러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그 구성원들이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민주사회의 존속과 발전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시민적인 자질에 의존한다. 1)

민주시민성은 자연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경험에 의해 습득되어진다. 오늘의 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당면하게 될 기회와 책임, 권리 등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 민주시민교육이다. 민주시민교육은 기존의 민주사회에만 적응하는 시민교육에만 한정하지 않고, 앞으로 있어야 할 이상적인 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세계관과 합당한 자질을 함양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공유하는 이해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태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적 생활태도, 민주주의의 이념적 원리, 절차적 원리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태도를 조사·분석함으로써 민주시민성의 수준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민주시민성의 함양을 위해서 학교교육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적인 생활태도의 기틀을 마련하

1) 광병선 외(1993), 「민주시민교육」, 서울:한국교육개발원, pp.3-5.

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민주시민성이나 정치적 성향은 어린 시절에 거의 획득, 결정되어 지며 이때 한번 결정된 시민성이나 정치적 성향은 성인기까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다.²⁾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초등학교 학생들의 민주시민성을 분석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장래를 예견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민주시민성을 조사 분석해 봄으로써 올바른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는데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제주도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시민성을 나타내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둘째, 시민성을 질문지법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질문지법이 갖는 제한점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신정현외(1987), 「민주시민교육론」, 탐구당, pp.56-60.

Ⅱ.이론적 배경

1. 민주시민성의 의미

오늘날 시민성 또는 시민자질로 번역되고 있는 'citizenship'이라는 용어의 어원인 CIVITAS에도 이러한 의미가 잘 나타나 있다. 라틴어로 CIVITAS는 '국가나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제도가 구성원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적 역할'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책임, 공동목적, 공동체 의식 등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영어의 'citizenship'이라는 단어는, 시민이라는 citizen과 자질, 조건이라는 ship이 합성되어 만들어진 만큼 그 속에는 다름 아닌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개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이 아니라 특정한 공동체의 구성원, 즉 시민이라는 지위에서 요구되는 자질을 지칭하는 개념인 셈이다.³⁾

19세기이래 근대 서유럽사회에서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온 시민성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한 요소⁴⁾들이 포함되었다.

첫째, 시민적 요소이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확립시키는 데 필요한 권리들로 개인행동의 자유, 언론·사상 및 신념의 자유, 재산권, 계약체결권 그리고 재판권 등이다.

둘째, 정치적 요소이다. 개인이 정치적 권위를 부여받은 기관의 일원으로 혹은 그러한 기관의 구성원들을 선출하는 일원으로서 정치권력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3) 김왕근(1995), "시민성의 내용과 형식으로서의 덕목과 합리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p.11-12.

4) 신정현의, 전개서, pp.26-32.

셋째, 사회적 요소이다. 비교적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개인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경제적 복지와 안전에 대한 권리에서부터 사회유산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와 개인의 문명화된 존재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의미한다.

시민권은 강한 공동체 의식의 형성과 함께 일정한 권리들을 부여받고 동시에 보통법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인들의 충성심을 전제로 하였다. 법적·제도적으로 시민들의 제 권리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그렇게 확립된 제 권리를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의지와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현대사회에서 시민이란 정치적 주체로서 치자인 동시에 피치자의 지위를 가진 사회계층으로서 자유와 권리,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지닌 국가의 구성원내지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으로서 행복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시민이나 공민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될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의 여러 면에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사회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

한편 시민성이란 개념에서 한 단어가 추가된 민주시민성(democratic citizenship)이란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말 그대로 ‘민주적인(democratic)’이란 단어와 ‘시민성(citizenship)’이란 단어가 합성된 말로서 결국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태도와 행동양식을 갖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의미한다고 하겠다.⁵⁾ 사실상 민주주의는 깊은 철학적 의미와 인류가 겪은 다양한 경험을 내포하고 있는 복합적인 개념이므로 이 역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뜻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Dewey는 민주사회의 요소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첫째 요소는 사회성원

5) 이해주(1996), “사회교육 참여와 민주시민성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15.

이 공유하는 공동 관심사의 수가 많고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 관심사의 인정을 사회통제의 방법으로서 더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둘째 요소는 여러 사회집단사이의 보다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습관이 변화하는 것- 다시 말하면,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빚어지는 새로운 사태에 맞게 끊임없이 적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두 가지 특성은 바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 운영되는 사회의 특징이다. 즉,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의 형태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동생활의 형식이요, 경험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⁶⁾

민주주의는 종래 정치형태로서 정치적인 면에서만 해석되어 왔으나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사회의 내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행동양식과 생활신조로서의 민주주의 개념이 등장하여” 이제 “민주주의는 국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정치형태 또는 정치원리인 동시에 정치적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행동양식과 생활신조까지도 의미하기에 이르렀다.”⁷⁾

박동서·김광웅⁸⁾은 민주주의를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측면을 갖는 정치이데올로기로 규정하면서 민주주의의 세 측면을 기본적 측면, 제도적 측면, 실천적 측면, 그리고 생활태도로 나누어 설명하고 그 중 실천적 측면을 가장 강조하였다. 민주주의는 ‘공동생활의 양식’이므로 그저 생각이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Cohen도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시민들이 민주적인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⁹⁾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다양한 만큼 민주적 생활태도와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 것도 다양하다. 민주적 태도와 관련하여 Lasswell은 크게 다섯 가지 속성을 제시하고 있다.¹⁰⁾ 첫째, 타인에 대한 경직되고 배타적인 태도를 갖기보다는 온

6) Dewey(1916), 이홍우 역(1996),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교육과학사, pp.136-137.

7) 이극찬(2000), 「정치학」, 서울:법문사, pp.19-20.

8) 박동서·김광웅(1989), 「한국인의 민주정치의식」, 서울대학교출판부, pp.46-49.

9) 이해주, 전개논문, p.17에서 재인용

10) 전득주의(1992), 「현대민주시민교육론」, 평민사, p.45.

화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개방성, 둘째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떠한 가치나 이해관계를 토의하고 합의하며 함께 공유하려는 자세, 셋째 일원적인 가치보다는 다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태도, 넷째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하는 속성, 다섯째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들고 있다.

Almond와 Verba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첫째 개인들이 속하고 있는 정치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둘째 법을 준수하고 정책에 따를 줄 알며 필요할 때 참여할 자신감, 셋째 주위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적 신뢰, 넷째 주위사람들과 타협하여 나아가서 이익단체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들고 있다.¹¹⁾

미국의 NCSS(The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와 SSEC(the Social Science Education Consortium)가 제시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살펴보면, “①민주시민은 식견을 갖춘 사람이다. ②민주시민은 민주주의적 가치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③민주시민은 자유 사회의 제반 과정과 절차에 숙달된 사람이다. ④민주시민은 사회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책무를 느끼고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¹²⁾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상을 ‘현명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규정하고 이를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①인간의 존엄성의 인식 ②기본 생활 습관 및 질서 의식의 내면화 ③민주적 절차 및 과정에의 숙달 ④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함양으로 나누고 그 밑에 18개의 덕목, 64개의 하위 학습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¹³⁾

민주시민이란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민주적인 가치관 그리고 그것을 행동화할 수 있는 시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

11) 한승석(1991), “사회과 교육의 민주시민성에 관한 지식과 태도의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p5 재인용

12) 한국교육개발원(1990), 「고등학교 민주주의 교육 요구조사」, pp31-32.

13) 상계서, p.36.

지 민주시민성에 관한 제 이론들과 연구들을 종합하여 민주시민성을 ‘민주적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갖춘 시민으로서의 자질’이라고 정의하겠다. 여기서 민주적 생활 태도란 민주주의의 기본적 이념에 대한 인식, 절차적 원리에 대한 인식과 민주적 생활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하위 요소로는 첫째, 인간 존엄의 원리,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의 원리, 평등의 원리, 개인주의의 원리 등 주로 규범적 요소와 둘째, 토론 절차의 인정, 관용의 태도, 비판과 타협의 수용,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태도 등의 절차적 요소로 규정하였다.

또한 민주적 행동 양식이란 민주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시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정치적 관심, 정치 토론에의 참여, 지역사회 문제예의 참여,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 등을 그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민주시민성에 관한 연구이므로 민주적 생활태도를 중심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민주시민성의 구성요소

1) 민주주의의 이념적 원리

민주주의의 이념적 원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관점에 따라 달리 규정되고, 그에 대한 해석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인간존엄의 원리,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의 원리, 평등의 원리, 개인주의의 원리 등을 민주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규범적 이념으로 하고자 한다.

(1) 인간존엄의 원리

민주주의는 인간존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생명권을 포함한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그 이념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관해서는 “자연적으로 인간에 속하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인권은 천부적 불가양의 신성한 것으로 묘사되었으며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뒷받침해 주는 기초적 원리가 되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향상, 자율성의 보장 그리고 자아를 실현

하는 문제와 직결되므로 민주주의가 최대한 보장해야 할 주요한 이념적 목표라고 규정할 수 있다.¹⁴⁾

특히 앞으로 논의될 자유나 평등이 목적가치로서 귀중한 규범적 이념인 것은 사실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명제야말로 가장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이념이라고 하겠다. 인간존엄의 명제로부터 그 밖의 다른 이념들이 파생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이 가지는 의미는 깊고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지위, 성별, 빈부에 관계없이 하나의 존재로서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¹⁵⁾

(2) 자유의 원리

민주주의의 이념으로서 자유는 인권과 밀접히 연관된다. 왜냐하면 인권의 보장은 곧 이성을 가진 인간이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고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기회를 보장받으며 나아가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의 개념을 정의하면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다. 소극적인 의미의 자유로서 외부세력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되고 강제나 구속에서 해방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의미로서 소유, 완전한 기회, 행동을 위한 권리 등에 대한 의사 표현 및 태도를 포함하는 것을 뜻한다. ¹⁶⁾ 다시 말해서 자유에 대한 요구는 역사적 경험으로 보더라도 외부로부터의 압박이나 간섭을 배제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지에 입각하여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적극성에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자유의 내용이나 성격도 시대에 따라 변해 왔다. 즉 국가와 국민 개인간의 관계만 보더라도 국가의 간섭을 배격하던 때가 있었는가 하면 오늘날에는 국가의 보호와 관계를 허용하는 양상을 띠기도 한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의 제약이다. 오늘날 국가간섭이 여지없고 또한 당연하다고까지 여겨지는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속박은 지정학적 요소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수궁되는 면도 있다. 또 개

14) 신정현외(1987), 전게서, pp.40-41.

15) 박동서·김광웅(1989), 전게서, p.51.

16) 신정현외(1987), 전게서, pp.51-52.

인의 국가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에서도 자유의 구가가 서로 방해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제약이 따른다. ‘양보적 자유’라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17)

(3) 평등의 원리

모든 인간은 본질상 평등하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주요한 이념이다. 민주주의에 있어 평등 이념은 모든 인간이 능력이나 사고하는 데 있어서는 같지 않지만 인격적인 면에서 동등하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18) 인간은 가진 것에서 평등하며, 대접에서도 평등하여야 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며, 법 앞에서도 평등하다. 그러나 실제로 절대적인 평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의 성격에 따라 특정한 능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그에 따라 적합한 지위와 책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한정된 측면을 나타낼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인간의 가치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측면에서 열등하여 불평등한 대접을 받을 때가 있겠지만 이로 인해 가치마저 달리 평가될 수는 없다.

평등의 내용이나 성격 역시 역사적으로 변해왔으며, 다소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갖는 특정한 주장으로 세분화되어 왔다. 즉 법 앞의 평등, 정치적 평등,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회균등, 경제적 평등, 사회적 평등 등의 개념들이 그것이다. 19)

(4) 국민주권의 원리

주권이란 국가권력 내지는 통치권을 의미한다. 국민주권주의란 이러한 국가주권의 원천이 군주와 같이 한사람이나 어떤 특정계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있다는 원리를 이룬다. 국민주권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한 필연적이고 논리적인 출발점으로 간주되어 왔다. 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라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누리려면 인간존재의 본질상 국가권력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것이어야만 한다는 논리가 관철되어야 했던 것이다.20)

17) 박동서·김광웅(1989), 전계서, pp.51-52.

18) 신정현외, 전계서, pp.40-44

19) 이정균(1997), 「민주주의론」, 서울:형설출판사, pp.41-42.

물론 주권의 개념이나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설상의 많은 논란이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국민주권의 원리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따라야한다.”는 표현으로 그 진의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5) 개인주의 원리

요즈음 국가의 우월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주의의 입장에 따르면 개인의 존재가 상대적으로 미미해지는 결과를 낳지만, 그래도 국가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국민이며, 기 국민 개개인의 존재이유를 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사상에서 보아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개인주의는 국가나 사회에 대하여 개인의 우월한 가치를 인정하자는 것이고, 그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개인주의는 개인의 인격완성을 중시하고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타인의 같은 자유의 행사와 양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²¹⁾

개인의 인격은 최고가치를 지닌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이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때 사회나 국가는 각 개인의 궁극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먼저 밝힌 국가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다.

사회의 종합기능을 중시하고, 국가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고전적 의미의 개인주의는 타당성을 잃어가게 마련이다. 오히려 개인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는 경계된다. 그렇다고 개인에 앞서 국가를 절대시하는 전체주의 같은 사고방식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유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나 경쟁이 전체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20) 이정균(1997), 전계서, pp.43-44.

21) 박동서·김광웅(1989), 전계서, pp.53-54.

2) 민주주의의 절차적 원리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념적 원리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과정과 관련된 절차적 원리도 있으며, 이 또한 이념적 원리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것은 민주주의 이념으로 사회갈등 같은 사회의 실제문제를 해결하려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중요하고 그 절차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절차적 규범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주장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민주적 결정과정에서 요청되는 네 가지의 절차적 원리와 행동원리에 대해 분석하여 국민의 신념체계를 밝혀볼 필요를 느낀다. 네 가지의 절차적 규범은 ①토론절차의 인정, ②관용의 태도, ③비판과 타협의 수용, ④다수결의 원리와 소수자의 권리 등이다.

(1) 토론절차의 인정

민주주의의 절차적 규범으로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개적인 토론을 거치는 절차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의 정책이나 결정에서 내용과 목적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소망스럽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민주적이 아니라면 결국 결정의 정당성을 지키기가 어렵다. 물론 목적에 대한 의견의 일치도 중요하지만, 각자로 하여금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그런 가운데 서로 다른 의견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도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의견의 개진이 소중한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며,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해 각자가 갖고 있는 편견을 확인하고 보다 폭넓고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려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적 절차의 핵심이 아닐 수 없다. 합리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믿는 것도 바로 이러한 근거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토론 자체를 구차하고 비능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들었다. 또 토론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회의’가 되어버리면 책임만 전가될 뿐 사실상 의미는 없어진다. 더욱이 토론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수 없는 수사적 유희에 불과해지면 이 또한 토론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토론절차의 중요성에 관한 의식을 알고자 “중간절차야 어떻게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언명과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여 토

론하는 것보다 한두 사람이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언명을 구성해 볼 수 있다.

(2) 관용의 태도

관용이란 광의로는 자기와는 다른 남의 이질성을 용인하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자는 상대적 입장에서 진리추구의 길에 참여하고 있는 일원이다. 따라서 나 아닌 남도 제각기 진리추구의 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서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남도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의미의 관용은 이를 두고 이름이다.

관용의 정신은 다음의 두 가지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진리 그 자체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은 다만 한정된 것이며, 그 일면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각에 입각하여, 오직 자기만의 입장을 절대화시키지 아니하고 진리에 대해서 널리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둘째, 자기의 유한성을 자각함으로써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 타인과의 공존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이 같은 태도는 특정한 결정을 이루는 과정에 불과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 것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와 같이 서열이 크게 강조되고, 공정한 경쟁이나 진보를 위한 갈등이 제대로 기틀을 잡지 못한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의 표출과 이의 경쟁을 통한 합의 과정이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 그 전제로서 관용의 태도는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하겠다.²²⁾

(3) 비판과 타협의 수용

민주적 절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비판과 타협의 수용이다. 어떤 일에 대한 각자의 시각과 인식의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판은 보다 창

22) 한국교육개발원(1994), 「민주사회 민주시민」, pp.33-34.

조적인 것을 낳기 위한 과정으로서,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생활태도이다.²³⁾

따라서 하나의 의견은 절대적일 수 없으며, 항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 비판은 보다 창조적인 것을 낳기 위한 인고의 과정이므로 비판이 있어야 마땅하고 동시에 이를 받아들여 적용하고 타협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의 입장을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면서 비판을 수용치 못하면 결국 타협은 불가능하게 되고 만다. 타협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목적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서로 조정함으로써 대립관계를 잠정적으로 합치시키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²⁴⁾ 그래서 타협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일방적으로 또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의 주장과 목적을 반성함으로써 대립된 의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식으로서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간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도 타협은 불가결한 요소이다.

(4)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자의 권리

다양한 주장이나 의견을 통합하여 잠정적인 합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견해의 대립이나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자의 권리가 중요한 민주적 절차의 한 원리로서 요청된다.

다수결의 원리는 다수가 소수를 절대적으로 지배하겠다는거나 억압하겠다는 원리가 아니라, 다수와 소수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는 가운데 사회적 의지를 창조하는 방안으로 발달한 것이다. 즉 사회의 합리적인 공통의지를 창조하기 위해 사회의 여러 의지를 조화하고 종합하려는 것이다. 이때 만장일치라는 것이 확실히 이상적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최후의 결

23) 상계서, pp.34-36.

24) 이극찬(1983), 「민주주의」, 서울:법문사, pp.132-133.

정은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실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다수의 의견이 과연 언제나 정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뛰어난 소수의 의견이 어리석은 다수의 의견보다 바르고 정당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잘못된 의견이 다수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 반면, 올바른 의견이 소수의 의견으로서 배척을 받게 된다면 다수결에 의한 민주정치는 오직 수에만 의존하는 ‘衆愚 정치’나 ‘다수의 횡포’(tyranny of majority)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²⁵⁾

그래서 소수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소수자에게 다수의 의견을 자유롭게 분석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어야 다수결의 원리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사회에서 다수자는 잠재적 소수자이고, 소수자는 동시에 잠재적 다수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양자의 위치가 항구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수결의 원리가 힘이나 수의 지배가 아니라 이성의 지배라는 본래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소수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수 의견의 목적을 반성함으로써 대립된 의견들 사이의 공통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3) 민주적 생활태도

민주주의의 개념을 협의로 해석하면 특정의 정치형태나 정치제도에 한정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민주주의란 국가나 사회생활에의 실천원리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참다운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정치영역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양식에서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양식이 민주적으로 정립되지 못했거나 사회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 결여된 사람들이 많다면 그러한 사회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유교주의적 윤리규범과 고유의 전통생활양식이 지배적

25) 상계서, pp.145-146.

이어서 ‘민주적’이라고 하는 생활태도가 확고히 자리잡지 못했다. 민주적 생활양식의 실재를 알기 위해 ‘약속준수의 필요성’과 ‘공존의 윤리’ 등에 대한 것, 권위주의적인 생활태도로서는 ‘엄격한 서열의식’, ‘배타적인 가족주의’ 등을 시민성 평가의 척도로²⁶⁾ 생각해 볼 수 있겠다.

26) 박동서·김광웅(1989), 전계서, pp.65-66.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도구

민주시민성의 개념은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를 토대로 하여 ‘민주적인 생활 태도와 행동양식’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민주시민성의 척도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되어 어느 정도 표준화된 문항들 중에서 민주시민성을 측정하는 문항을 선별하여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민주시민성을 나타내는 문항은 민주적 생활태도, 민주주의의 기본적 이념, 민주주의의 절차적 원리 3영역으로 선정하였다.²⁷⁾ 민주적 생활태도 5문항, 민주주의의 이념 5문항, 민주주의의 절차 8문항, 배경 조사 6문항으로 구성하고 질문지는 Likert 식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구성 내용은 <표 1>과 같다.

27) 상계서, p.67.

<표 1> 조사도구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내 용	문항번호
민주적 생활태도	서열의식	서열의식에 대한 태도	1
	성역할에 대한 의식	성역할에 대한 의식	2
	공존의 윤리	공존의 윤리에 대한 태도	3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에 대한 태도	4
	가족주의	가족주의에 대한 태도	5
민주주의의 이념	인간의 존엄	인간의 존엄	6
	자유	자유	7
	평등	평등	8
	개인주의	개인주의	9
	국민주권	국민주권	10
민주주의의 절차	토론절차의 인정	중간절차의 중요성	11
		결정의 사전 공개 토의	12
	관용의 태도	경쟁의 필요성	13
		견해의 다양성	14
	비판과 타협의 수용	비판에 대한 수용	15
		양보와 타협에 대한 태도	16
	다수결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	17
		소수자의 권리	18

2. 표집

제주도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민주시민성의 수준을 알아보았다.

제주시지역 9개교, 서귀포지역 5개교, 북제주지역 6개교, 남제주지역 5개교 학생 약 800여명을 표집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질문지 조사는 2002년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각 학교 5, 6학년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860부를 배부하여 837부(97.21%)를 회수하였다.

질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회수된 질문지의 수는 837명이나 회수된 질문지 중에서 배경변인 전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성의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 실제로 분석의 대상으로 사용된 표집 수는 800명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의 특성을 그들의 배경 변인을 통해 정리해 보면 <표 3>와 같다.

<표 2>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지역	전체 초등학교 수	5·6학년 학생수	배부 학교수	설문지 배부수	회수된 수	제외 수	통계처리한 수	회수율 (%)
제주시	27	8222	9	450	449	17	432	97.78
서귀포시	17	2185	5	160	158	5	153	98.75
북제주군	32	2002	6	150	130	11	119	86.67
남제주군	29	1696	5	100	100	4	96	100
합계	105	14,105	25	860	837	37	800	97.21

<표 3> 배경 변인별 표집 인원

배경변인	변인구분	인원	구성비(%)	계
성별	남	385	48.1	799
	여	414	51.8	
학년	5학년	400	50.0	799
	6학년	399	49.9	
거주지	시지역	569	71.1	799
	농어촌지역	230	28.8	
아버지학력	대졸이상	340	42.5	778
	고졸	388	48.5	
	중졸이하	50	6.3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225	28.1	773
	고졸	480	60.0	
	중졸이하	68	8.5	
직업	농·수산업	137	17.1	798
	상업·서비스업	325	40.6	
	회사원	162	20.3	
	공무원	115	14.4	
	기타	59	7.4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의 통계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

- 1) 수집된 자료는 SPSS/PC+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각 문항별 응답자의 반응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M), 백분비(%),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다.
- 3) 배경 변인별 집단 간의 차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평균에 관한 t검정과 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IV. 연구의 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조사도구에서 제시한 18개 문항에 대한 반응 결과를 영역별 문항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논의하려고 한다.

첫째, 각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반응 분포, 반응 경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배경 변인별 유의한 차가 있는가를 분석하여 그 유의한 차의 결과를 중심으로 반응 경향을 해석하고 논의하며

셋째, 각 영역별 태도 점수를 합산한 뒤 그 평균을 구한 것을 그 영역에 대한 의식 수준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보아 각 배경 변인별 유의한 차가 있는 지를 분석하고 그 유의한 차의 결과를 중심으로 반응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민주적인 생활태도

민주적 생활태도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민주적 생활태도로 약속준수의 필요성, 공존의 윤리, 성 역할에 대한 의식과 권위적 생활태도로 엄격한 서열의식, 가족주의를 분석해 보았다. 이상의 다섯 항목을 합하여 '민주적 생활태도'란 변수를 만들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서열의식

서열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웃어른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웃어른의 말에 따르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이 62.3%이고 부정적 반응이 19.9%이며 평균이 2.45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생활방식이 응답자들의 의식 저변에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는 성별($p < .01$)과 학년별

($p < .001$)로 유의한 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학생이($M=2.35$) 여학생($M=2.54$)보다, 5학년($M=2.27$)이 6학년($M=2.63$)보다 서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권위적인 서열의식이 낮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표 4> 서열의식에 대한 태도

N	M	SD	반응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800	2.4550	1.0413	3.3	16.6	17.9	46.9	15.4	0
배경변인			N	M	SD	t/F		
성별	남		385	2.3558	1.0286	2.619**		
	여		414	2.5483	1.0468			
학년	5학년		400	2.2775	.9710	4.906***		
	6학년		399	2.6341	1.0804			
거주지	시지역		569	2.4060	1.0011	2.015*		
	농어촌지역		230	2.5783	1.1294			
아버지학력	대졸이상		340	2.3941	.9854	2.713		
	고졸		388	2.5309	1.0743			
	중졸이하		50	2.2400	1.0412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225	2.4267	.9752	1.412		
	고졸		480	2.4521	1.0508			
	중졸이하		68	2.6618	1.1410			
직업	농·수산업		137	2.5328	1.1571	0.807		
	상업·서비스업		325	2.4923	1.0471			
	회사원		162	2.4383	1.0089			
	공무원		115	2.3304	.9617			
	기타		59	2.3729	.9808			

(**: $p < 0.01$, ***: $p < 0.001$)

2) 성 역할에 대한 의식

성 역할에 대한 의식을 알기 위해 ‘여자도 능력이 있으면 가정 이외의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87.1%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성 역할에 대한 의식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평균이 4.47이고 표준편차가 0.8017에서는 성 역할에 의식이 매우 높으며 합의수준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성별과 학년별에서는 $p < .001$ 수준에서, 아버지 학력별, 직업별에서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학생($M=4.67$)이 남학생($M=4.26$)보다, 6학년($M=4.59$)이 5학년($M=4.36$)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버지 학력별로는 대졸이상($M=4.57$)이 고졸($M=4.40$), 중졸이하($M=4.48$)보다 성 역할 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부모의 직업별로는 공무원($M=4.66$)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공존의 윤리

민주적 생활태도로서 공존윤리에 대한 태도는 ‘비록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한 약속은 모두 지켜야 한다.’는 문항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69.9%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 8.3%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평균치 3.83이고 표준편차가 0.8911인 것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응답자 대부분이 자기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경변인별에 따른 반응 결과 거주지별($p < .05$)로 유의한 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지역($M=3.88$)이 농어촌 지역($M=3.73$)보다 공존의 윤리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성 역할에 대한 의식

N	M	SD	반응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800	4.4763	0.8017	0.8	1.5	10.6	23.6	63.5	0
배경변인		N	M	SD	t/F			
성별	남	385	4.2623	.8992	7.406***			
	여	414	4.6739	.6396				
학년	5학년	400	4.3600	.8557	4.121***			
	6학년	399	4.5915	.7271				
거주지	시지역	569	4.4921	.8030	0.914			
	농어촌지역	230	4.4348	.7999				
아버지학력	대졸이상	340	4.5794	.7464	4.558*			
	고졸	388	4.4021	.8310				
	중졸이하	50	4.4800	.7624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225	4.5289	.7678	1.335			
	고졸	480	4.4521	.8210				
	중졸이하	68	4.5882	.6519				
직업	농·수산업	137	4.4453	.8482	3.024*			
	상업·서비스업	325	4.3815	.8547				
	회사원	162	4.5309	.7895				
	공무원	115	4.6609	.5279				
	기타	59	4.5424	.8163				

(* : p<0.05 , ***: p<0.001)

<표 6> 공존의 윤리에 대한 태도

N	M	SD	반응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800	3.8371	0.8911	0.9	7.4	21.6	47.1	22.8	0.3
배경변인		N	M	SD	t/F			
성별	남	384	3.8776	.9215	1.170			
	여	413	3.8039	.8577				
학년	5학년	398	3.8116	.9046	0.883			
	6학년	399	3.8672	.8739				
거주지	시지역	568	3.8820	.8860	2.137*			
	농어촌지역	229	3.7336	.8904				
아버지학력	대졸이상	340	3.9118	.8679	2.215			
	고졸	387	3.7959	.9202				
	중졸이하	50	3.7000	.7354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225	3.9422	.8769	2.477			
	고졸	478	3.8054	.8936				
	중졸이하	68	3.7206	.8612				
직업	농·수산업	136	3.7721	.9267	0.498			
	상업·서비스업	324	3.8395	.8792				
	회사원	162	3.9074	.8547				
	공무원	115	3.8435	.8542				
	기타	59	3.7797	1.0182				

(* : p<0.05)

4)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보는 사람이 없을 때라도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은 요령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7>에서 보듯이 부정적인 반응이 52.1%, 긍정적 반응이 20.4%이고 평균이 3.49로 공동체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표 7>과 같이 성별(p<.01), 부모의 직업별(p<.05)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으며, 여학생(3.62)이 남학생(3.36)보다 규칙을 지키려는 태도가 강한 입장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직업별로는 공무원(3.64), 상업·서비스업(3.63), 회사원(3.35), 농·수산업(3.34) 순으로 규칙준수에 따른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7> 공동체 의식에 대한 태도

N	M	SD	반응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800	3.4962	1.2034	24.8	27.3	27.1	13.3	7.1	0.8
배경변인			N	M	SD	t/F		
성별	남		383	3.3629	1.2476	3.035**		
	여		410	3.6220	1.1495			
학년	5학년		395	3.4127	1.2399	1.965		
	6학년		398	3.5804	1.1630			
거주지	시지역		565	3.5274	1.2020	1.126		
	농어촌지역		228	3.4211	1.2086			
아버지학력	대졸이상		338	3.5296	1.2448	0.351		
	고졸		386	3.4948	1.1870			
	중졸이하		50	3.3800	1.0669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224	3.4286	1.2721	1.094		
	고졸		475	3.5474	1.1797			
	중졸이하		68	3.3824	1.0794			
직업	농·수산업		135	3.3481	1.2656	3.309*		
	상업·서비스업		323	3.6316	1.1134			
	회사원		161	3.3540	1.3153			
	공무원		114	3.6404	1.1531			
	기타		59	3.2203	1.2327			

(* : p<0.05 , **: p<0.01)

5) 가족주의

가족주의에 대한 태도는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내 가족 밖에 없다’는 문항을 통해 알아보았다. 가족주의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내 가족 밖에 없다.’라는 의견에 그렇다가 42.2%이고, 잘 모르겠다 42%, 그렇지 않다 15.4%로 평균은 3.31로 가족 중심적인 태도에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준다.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학년별($p < .001$), 아버지 학력별($p < .05$), 어머니 학력별($p < .01$)로 유의한 차를 보여주고 있다.

학년별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5학년(3.08)이 6학년(3.54) 보다 가족주의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고학년이 가족주의에 대한 태도가 낮은 것은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아버지 학력에 따른 반응결과, 중졸이하(3.52)가 높게 나타나고 고졸(3.17)이 낮게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에 따른 반응 결과는 대졸이상(3.53)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고졸(3.18)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집단간 표준편차가 1.2이상인 것으로 보아 합의수준이 낮다고 하겠다.

5) 민주적 생활태도

민주적 생활태도의 항목은 서열의식, 성 역할에 대한 의식, 공존의 윤리, 공동체 의식, 가족주의이다. 이상의 다섯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 점수를 합산한 뒤 그 평균을 구한 것으로 민주주의 생활태도에 대한 의식수준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민주적 생활태도에서 성 역할에 대한 의식(4.47)과 공존의 윤리(3.88)가 높게 나타났으나 서열의식(2.45), 가족주의(3.31)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민주와 권위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적 생활태도의 평균이 3.41이고 표준편차는 0.5254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는 학년별($p < .001$)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5학년이 6학년 보다 민주적 생활태도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민주적 생활을 실천

<표 8> 가족주의에 대한 태도

N	M	SD	반응구분(%)					
			전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800	3.3158	1.3341	4.0	11.4	42.0	29.6	12.6	0.4
배경변인			N	M	SD	t/F		
성별	남	383	3.4073	1.3904	1.826			
	여	414	3.2343	1.2758				
학년	5학년	398	3.0879	1.3670	4.920***			
	6학년	399	3.5464	1.2610				
거주지	시지역	567	3.2910	1.3536	0.878			
	농어촌지역	230	3.3826	1.2853				
아버지학력	대졸이상	340	3.4382	1.3144	4.098*			
	고졸	387	3.1783	1.3512				
	중졸이하	50	3.5200	1.2656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225	3.5333	1.3059	5.650**			
	고졸	479	3.1879	1.3265				
	중졸이하	68	3.4559	1.3652				
직업	농·수산업	137	3.2044	1.3402	0.560			
	상업·서비스업	324	3.3519	1.3514				
	회사원	162	3.4012	1.2876				
	공무원	115	3.3043	1.3257				
	기타	58	3.2069	1.3861				

(* : p<0.05 , **: p<0.01, ***: p<0.001)

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배경변인별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을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민주적 생활태도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9> 민주적 생활태도 수준

N	M	SD	반응구분(%)				
			서열의식	성 역할에 대한 의식	공존의 윤리	공동체의 식	가족주의
800	3.4115	0.5254	2.4550	4.4763	3.8371	3.4962	3.3158
배경변인			N	M	SD	t/F	
성별	남	385	3.4057	.5402	.287		
	여	414	3.4164	.5124			
학년	5학년	400	3.4818	.5384	3.833***		
	6학년	399	3.3405	.5034			
거주지	시지역	569	3.4325	.5188	1.799		
	농어촌지역	230	3.3587	.5399			
아버지학력	대졸이상	340	3.4282	.5435	.262		
	고졸	388	3.4001	.5150			
	중졸이하	50	3.4080	.4729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225	3.4184	.5464	.344		
	고졸	480	3.4162	.5150			
	중졸이하	68	3.3618	.5243			
직업	농·수산업	137	3.4285	.5696	2.015		
	상업·서비스업	325	3.3506	.5169			
	회사원	162	3.4509	.5006			
	공무원	115	3.4500	.5062			
	기타	59	3.5076	.5483			

(***: p<0.001)

2. 민주주의의 이념

민주주의가 함축하고 있거나 추구하는 이념적 원리들에는 인간의 존엄성, 국민주권, 자유, 평등, 개인주의에 한정하여 그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이념에 관해 집단 간의 의식격차를 알기 위해 다섯 가지 이념 원리에 관한 문항을 하나로 묶어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태도'라는 변수를 만들었다. 응답자들의 반응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은 나와 똑같이 소중하다.'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긍정적인 반응이 90.1%이고 부정적 반응이 2.1%로 긍정적인 반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평균도 4.47로 인간의 가치는 가장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변인별 반응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 간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집단 모두에서 지지도가 높으며 민주주의 이념적 가치가 교육을 통해 국민의 의식에 내면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2) 자유

자유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개인의 자유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결과 34.5%가 '매우 그렇다', 29.5%가 '대체로 그렇다'로 긍정적인 반응이 64%이고 부정적 반응이 8.9%로 개인의 자유에 대해 찬성의 뜻을 나타내었다. 이는 자유를 민주주의의 이념적 가치로 받아들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별($p < .05$)로 유의한 차를 보여, 6학년($M=3.96$)이 5학년($M=3.80$)보다 자유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0>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태도

N	M	SD	반응구분(%)					
			전혀 그렇지않 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800	4.4750	0.7550	0.6	1.5	7.8	30.0	60.1	0
배경변인		N	M	SD	t/F			
성별	남	385	4.4649	.8000	0.384			
	여	414	4.4855	.7121				
학년	5학년	400	4.4675	.7781	0.303			
	6학년	399	4.4837	.7327				
거주지	시지역	569	4.4763	.7434	0.040			
	농어촌지역	230	4.4739	.7856				
아버지 학력	대졸이상	340	4.4647	.7956	0.506			
	고졸	388	4.4742	.7379				
	중졸이하	50	4.5800	.6728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225	4.4889	.8135	0.088			
	고졸	480	4.4688	.7417				
	중졸이하	68	4.5000	.6579				
직업	농·수산업	137	4.3869	.8766	1.818			
	상업·서비스업	325	4.4277	.7729				
	회사원	162	4.5432	.6697				
	공무원	115	4.5565	.7033				
	기타	59	4.5932	.6464				

<표 11> 자유에 대한 태도

N	M	SD	반응구분(%)					
			전혀 그렇지않 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800	3.8821	1.0229	1.8	7.1	26.8	29.5	34.5	0.4
배경변인		N	M	SD	t/F			
성별	남	382	3.8220	1.0794	1.651			
	여	414	3.9420	.9625				
학년	5학년	399	3.8045	1.0184	2.218*			
	6학년	397	3.9647	1.0194				
거주지	시지역	567	3.9030	1.0413	0.807			
	농어촌지역	229	3.8384	.9711				
아버지학력	대졸이상	339	3.9676	1.0127	2.307			
	고졸	386	3.8238	1.0320				
	중졸이하	50	3.7400	.9649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224	4.0089	.9796	2.503			
	고졸	478	3.8243	1.0353				
	중졸이하	68	3.8676	1.0496				
직업	농·수산업	136	3.8824	1.0545	1.560			
	상업·서비스업	325	3.8585	1.0445				
	회사원	160	3.8563	1.0022				
	공무원	115	4.0870	.9038				
	기타	59	3.7288	1.0640				

(* : p<0.05)

3) 평등

평등의 원리를 묻는 ‘사람들은 재산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에 매우 그렇다가 53.4%, 대체로 그렇다 21.4%로 평등의 원리를 강하게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평등이 대부분의 응답자들에게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를 살펴보면 배경변인별 반응은 성별($p<.05$), 학년별($p<.01$)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여학생($M=4.26$)이 남학생($M=4.10$)보다, 6학년($M=4.29$)이 5학년(4.08)보다 평등에 대한 태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계속되어온 민주시민교육의 결과라고 하겠다.

4) 개인주의

개인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국가를 위해 개인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문항에 대해 긍정하는 비율이 42.2%, 중립이 42%, 부정이 15.4%이고 평균 또한 2.64를 나타내어 국가와 개인의 문제는 비교적 국가를 우선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경변인별 반응결과를 보면,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을 강조해 온 유교적 전통, 국가 또는 정부를 절대시해 온 국가중심주의 사상의 정치문화로 인해 개인주의원리에 대해서는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국민주권

국민주권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정부는 국민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결과, 긍정이 72.1%, 부정이 7.8%이고 평균이 3.98인 것으로 보아 국민주권에 대한 지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응답자의 대부분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정부가 국민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평등에 대한 태도

N	M	SD	반응구분(%)					
			전혀 그렇지않 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800	4.1880	1.0423	2.3	5.1	17.6	21.4	53.4	0.3
배경변인			N	M	SD	t/F		
성별	남	383	4.1044	1.0971	2.211*			
	여	414	4.2681	.9832				
학년	5학년	398	4.0804	1.0473	2.965**			
	6학년	399	4.2982	1.0267				
거주지	시지역	568	4.1585	1.0981	1.449			
	농어촌지역	229	4.2664	.8854				
아버지학력	대졸이상	339	4.1799	1.1041	1.604			
	고졸	387	4.2351	.9732				
	중졸이하	50	3.9600	1.0683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224	4.1741	1.0885	0.286			
	고졸	479	4.1837	1.0348				
	중졸이하	68	4.2794	.9117				
직업	농·수산업	136	4.3824	.8170	1.625			
	상업·서비스업	325	4.1231	1.0702				
	회사원	162	4.1975	1.1466				
	공무원	115	4.2087	1.0217				
	기타	58	4.1034	.9857				

(* : p<0.05 , **: p<0.01)

<표 13> 개인주의에 대한 태도

N	M	SD	반응구분(%)					
			전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 겠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800	2.6437	0.9764	4.0	11.4	42.0	29.6	12.6	0.4
배경변인		N	M	SD	t/F			
성별	남	384	2.6016	1.0645	1.189			
	여	412	2.6845	.8865				
학년	5학년	399	2.6366	.9382	0.228			
	6학년	397	2.6524	1.0151				
거주지	시지역	568	2.6585	.9793	0.637			
	농어촌지역	228	2.6096	.9715				
아버지 학력	대졸이상	340	2.5735	.9673	1.458			
	고졸	385	2.6961	.9888				
	중졸이하	50	2.6800	.9781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225	2.5867	.9649	0.395			
	고졸	477	2.6562	.9762				
	중졸이하	68	2.6471	.9890				
직업	농·수산업	135	2.5926	1.0170	0.287			
	상업·서비스업	324	2.6667	.9765				
	회사원	162	2.6358	.9309				
	공무원	115	2.6087	1.0061				
	기타	59	2.7288	.9796				

<표 14> 국민주권에 대한 태도

N	M	SD	반응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800	3.9811	0.9723	1.8	6.0	19.3	37.5	34.6	0.9
배경변인			N	M	SD	t/F		
성별	남	382	4.0052	.9881	0.711			
	여	410	3.9561	.9578				
학년	5학년	394	3.9239	.9933	1.612			
	6학년	398	4.0352	.9490				
거주지	시지역	563	3.9822	.9837	0.111			
	농어촌지역	229	3.9738	.9455				
아버지학력	대졸이상	336	4.0506	.9402	1.815			
	고졸	385	3.9143	.9845				
	중졸이하	50	4.0000	.9258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222	4.0450	.9407	1.278			
	고졸	476	3.9391	.9550				
	중졸이하	68	4.0735	.9973				
직업	농·수산업	137	4.0000	.9777	1.104			
	상업·서비스업	320	4.0063	.9858				
	회사원	161	3.8447	.9257				
	공무원	114	4.0702	1.0019				
	기타	59	4.0000	.9469				

6) 민주주의 이념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태도는 다섯 가지 이념원리에 관한 문항을 하나로 묶어서 평균을 구한 것을 ‘민주주의 이념’이라는 변수로 만들었다. 민주주의 이념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알아보면 <표 15>와 같다. 민주주의 이념의 평균은 3.96으로 전반적으로 민주주의 이념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가지 이념 중에서 인간존엄의 태도는 4.47, 평등 4.18, 자유 3.88, 국민주권 3.98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앞의 네 원리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이념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고무적이라 하겠다. 반면에 개인주의 원리에 대해서는 2.64로 국가와 개인의 문제에서 국가를 우선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학년별로 유의한 차를 보여 6학년이 5학년보다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태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표 15>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태도 수준

N	M	SD	반응구분(%)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개인주의	국민주권
800	3.9620	.5219	4.4750	3.8821	4.1880	2.6437	3.9811
배경변인			N	M	SD	t/F	
성별	남	385	3.9408	.5337	1.132		
	여	414	3.9826	.5109			
학년	5학년	400	3.9085	.5280	2.939**		
	6학년	399	4.0165	.5110			
거주지	시지역	569	3.9585	.5215	.334		
	농어촌지역	230	3.9722	.5246			
아버지학력	대졸이상	340	4.0035	.5245	1.855		
	고졸	388	3.9330	.5112			
	중졸이하	50	3.9200	.5451			
어머니학력	대졸이상	225	4.0080	.4987	1.835		
	고졸	480	3.9362	.5286			
	중졸이하	68	4.0147	.4891			
직업	농·수산업	137	3.9898	.5468	1.344		
	상업·서비스업	325	3.9354	.5415			
	회사원	162	3.9469	.5008			
	공무원	115	4.0557	.4896			
	기타	59	3.9254	.4501			

(**: p<0.01)

3. 민주주의 절차

민주주의 이념을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에 관한 절차적 규범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간절차의 중요성, 사전 공개토론, 경쟁의 필요성, 견해의 다양성, 비판의 수용, 양보와 타협, 다수결의 원리, 소수자의 권리 여덟 가지 원리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1) 토론절차의 중요성

토론절차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간 절차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주장을 제시한 결과 그렇다가 21.4% 이고 그렇지 않다가 45.9% 이며 평균은 3.2792로 토론 절차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에서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는 학년별($p<.01$), 아버지 학력별($p<.05$) 집단 간 유의한 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학년(3.39)이 5학년(3.17)보다 중간 절차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은 대졸이상(3.35), 고졸(3.27), 중졸이하(2.88) 순으로 중간 절차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중간 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은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표 16> 토론 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

N	M	SD	반응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800	3.2792	1.0764	10.9	35.0	32.1	13.8	7.6	0.6
배경변인		N	M	SD	t/F			
성별	남	381	3.2493	1.1348	0.826			
	여	413	3.3123	1.0153				
학년	5학년	398	3.1734	1.0323	2.873**			
	6학년	396	3.3914	1.1050				
거주지	시지역	566	3.2809	1.0646	0.049			
	농어촌지역	228	3.2851	1.0996				
아버지학력	대졸이상	339	3.3569	1.0794	4.360*			
	고졸	384	3.2760	1.0679				
	중졸이하	50	2.8800	1.0230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224	3.2813	1.1311	0.785			
	고졸	476	3.2668	1.0534				
	중졸이하	68	3.4412	1.0421				
직업	농·수산업	137	3.1825	1.1129	1.219			
	상업·서비스업	322	3.2888	1.0939				
	회사원	162	3.2593	1.0309				
	공무원	114	3.4561	1.0231				
	기타	58	3.1724	1.0619				

(* : p<0.05 , **: p<0.01)

2) 결정의 사전 토의

토론 절차에서 결정의 사전 토의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여 토의하는 것보다 한 두 사람이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이 22.9%, 부정적인 반응이 60.7%로 나타났고, 평균이 3.55이다. 이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정착 시켜나가는 데 고무적이라 하겠다.

<표 17>를 살펴보면 성별, 학년별, 어머니 학력별로는 $p < .05$, 아버지 학력별로는 $p < .01$, 부모 직업별로는 $p < .001$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3.64)이 남학생(3.45)보다 6학년(3.64)이 5학년(3.45)보다 사전토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별 반응은 대졸이상(3.72), 고졸(3.44), 중졸이하(3.38)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 학력별로는 대졸이상(3.73), 중졸이하(3.52), 고졸(3.4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직업별로는 공무원(3.9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수산업(3.35)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무원(3.98), 회사원(3.70)이 농수산업(3.35), 상업·서비스업(3.39)에 비해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겠다.

<표 17> 결정의 사진 공개 토의에 대한 태도

N	M	SD	반응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800	3.5532	1.2732	26.9	33.8	16.4	13.5	9.4	0.1
배경변인		N	M	SD	t/F			
성별	남	384	3.4531	1.3588	2.146*			
	여	414	3.6473	1.1835				
학년	5학년	399	3.4586	1.2946	2.117*			
	6학년	399	3.6491	1.2470				
거주지	시지역	568	3.6074	1.2706	1.868			
	농어촌지역	230	3.4217	1.2747				
아버지학력	대졸이상	339	3.7286	1.2344	5.174**			
	고졸	388	3.4433	1.2977				
	중졸이하	50	3.3800	1.1933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224	3.7366	1.2446	3.217*			
	고졸	480	3.4771	1.2889				
	중졸이하	68	3.5294	1.1904				
직업	농·수산업	137	3.3577	1.2876	6.113***			
	상업·서비스업	325	3.3938	1.3000				
	회사원	162	3.7099	1.1673				
	공무원	114	3.9825	1.1050				
	기타	59	3.6102	1.4505				

(* : p<0.05 , **: p<0.01, ***: p<0.001)

3) 경쟁의 필요성

관용의 태도에서 경쟁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는 것은 마찰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는 의견에 긍정적 반응이 38.7%, 부정적 반응이 27%이고 평균이 2.84로 경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쟁이란 무질서와 불안정을 조장하는 계기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 같다.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성별($p < .01$), 학년별($p < .05$)로 유의한 차가 있음이 드러났다. 남학생이 2.71, 여학생이 2.96으로 여학생이 경쟁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정하며, 5학년 2.76, 6학년 2.92로 5학년이 경쟁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표 18> 경쟁의 필요성

N	M	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800	2.8442	1.1342	8.9	18.1	33.8	26.1	12.6	0.5
배경변인			N	M	SD	t/F		
성별	남		382	2.7173	1.2031	3.060**		
	여		413	2.9637	1.0549			
학년	5학년		397	2.7657	1.1160	1.978*		
	6학년		398	2.9246	1.1486			
거주지	시지역		565	2.8726	1.1476	1.063		
	농어촌지역		230	2.7783	1.1012			
아버지학력	대졸이상		340	2.9294	1.1953	2.202		
	고졸		384	2.7813	1.0907			
	중졸이하		50	2.6600	1.0224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224	2.9018	1.1901	1.835		
	고졸		477	2.8449	1.1232			
	중졸이하		68	2.6029	.9641			
직업	농·수산업		136	2.6618	1.1236	2.239		
	상업·서비스업		324	2.8519	1.1306			
	회사원		161	2.7950	1.0904			
	공무원		115	3.0087	1.1884			
	기타		58	3.0862	1.1283			

(* : $p < 0.05$, **: $p < 0.01$)

4) 견해의 다양성

견해의 다양성에 대한 태도를 묻는 ‘나라의 문제나 사회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항목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77%이고 부정적 반응이 4.8%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견해에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평균도 <표 19>에서보듯이 4.11로 높게 나타났고 표준편차도 0.8966으로 견해의 다양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합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19>에서 배경변인별 집단 간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타인과의 공존을 인정하고 다양한 견해의 표출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이념이 그만큼 내면화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5) 비판에 대한 수용

민주주의 절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비판과 타협의 수용이다. 비판에 대한 수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나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 용기있게 고치고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결과 평균이 4.15이고 긍정적 반응이 81.4%, 부정적 반응이 5.7%로 비판을 수용하겠다는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집단 간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의 합리적인 비판을 수용하고 스스로도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9> 견해의 다양성

N	M	SD	반응구분(%)					
			전혀 그렇지않 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800	4.1118	0.8966	1.0	3.8	17.8	37.6	39.4	0.5
배경변인			N	M	SD	t/F		
성별	남	383	4.0809	.9524	0.898			
	여	412	4.1383	.8416				
학년	5학년	398	4.1005	.9062	0.321			
	6학년	397	4.1209	.8879				
거주지	시지역	565	4.1274	.8941	0.825			
	농어촌지역	230	4.0696	.9034				
아버지학력	대졸이상	339	4.1475	.9079	1.061			
	고졸	385	4.0935	.8759				
	중졸이하	50	3.9600	.9681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224	4.1250	.8897	2.630			
	고졸	477	4.1300	.8911				
	중졸이하	68	3.8676	.9448				
직업	농·수산업	137	4.0730	.9365	0.515			
	상업·서비스업	323	4.1084	.8937				
	회사원	160	4.0938	.8526				
	공무원	115	4.2174	.8962				
	기타	59	4.0678	.9444				

<표 20> 비판에 대한 수용의 태도

N	M	SD	반응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800	4.1568	0.9102	1.6	4.1	12.5	40.1	41.3	0.4
배경변인		N	M	SD	t/F			
성별	남	383	4.2063	.9105	1.470			
	여	413	4.1114	.9096				
학년	5학년	399	4.1278	.8945	0.907			
	6학년	397	4.1864	.9269				
거주지	시지역	567	4.1817	.8900	1.201			
	농어촌지역	229	4.0961	.9595				
아버지학력	대졸이상	338	4.2160	.8600	1.311			
	고졸	387	4.1111	.9416				
	중졸이하	50	4.1000	.9313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223	4.1435	.9478	0.122			
	고졸	480	4.1688	.8899				
	중졸이하	67	4.1194	.8965				
직업	농·수산업	136	4.1544	.9180	0.790			
	상업·서비스업	323	4.1331	.9412				
	회사원	162	4.2593	.8080				
	공무원	115	4.1304	.9415				
	기타	59	4.0508	.9363				

6) 양보와 타협

양보와 타협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상대방에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보다 자신의 소신을 밀고 나가야 한다’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그렇다가 27.1%, 그렇지 않다 41.6%, 잘 모르겠다 30.8%로 다양하게 반응이 나타났다. 또한 평균 3.16로 양보와 타협에 대한 태도가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신을 강조하며 타협이라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정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대립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숙한데서 비롯되는 것 같다.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는 <표 21>에서 보듯이 성별($p < .05$)과 학년별($p < .01$)로 유의한 차가 있다. 여학생(3.24)이 남학생(3.07)보다, 6학년(3.30)이 5학년(3.03)보다 양보와 타협에 대한 바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다수결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나의 생각과 달라도 많은 사람이 결정하면 이에 따른다’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긍정적 반응이 70.9%이고 부정적 반응이 13.3%이며 평균이 3.87로 다수결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반응을 보면, 부모의 직업별($p < .05$)로 유의한 차를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수산업(4.05), 공무원(4.00), 회사원(3.87), 상업·서비스업(3.78), 기타(3.66) 순으로 다수결의 원리에 대한 태도가 바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양보와 타협에 대한 태도

N	M	SD	반응구분(%)					
			전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 겠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800	3.1660	1.1312	11.3	30.3	30.8	18.0	9.1	0.6
배경변인			N	M	SD	t/F		
성별	남		381	3.0787	1.2005	2.118*		
	여		413	3.2494	1.0582			
학년	5학년		397	3.0327	1.1153	3.379**		
	6학년		397	3.3023	1.1323			
거주지	시지역		565	3.1717	1.1254	0.163		
	농어촌지역		229	3.1572	1.1477			
아버지학력	대졸이상		338	3.2130	1.1409	0.538		
	고졸		385	3.1714	1.1350			
	중졸이하		50	3.0400	1.0294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224	3.2589	1.1733	0.778		
	고졸		476	3.1450	1.1173			
	중졸이하		68	3.1765	1.0501			
직업	농·수산업		135	3.0296	1.1457	1.363		
	상업·서비스업		324	3.1636	1.0794			
	회사원		161	3.1366	1.1858			
	공무원		114	3.3596	1.1220			
	기타		59	3.1864	1.2102			

(* : p<0.05 , **: p<0.01)

<표 22> 다수결의 원리에 대한 태도

N	M	SD	반응구분(%)					
			전혀 그렇지않 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800	3.8758	1.0871	3.5	9.8	15.5	37.8	33.1	0.4
배경변인			N	M	SD	t/F		
성별	남	383	3.8825	1.1112	0.203			
	여	413	3.8668	1.0654				
학년	5학년	398	3.9497	1.0395	1.960			
	6학년	398	3.7990	1.1289				
거주지	시지역	568	3.8838	1.0775	0.386			
	농어촌지역	228	3.8509	1.1125				
아버지학력	대졸이상	339	3.9646	1.0625	2.282			
	고졸	386	3.7927	1.1182				
	중졸이하	50	3.8600	.9037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225	3.9600	1.0745	2.476			
	고졸	477	3.8008	1.1058				
	중졸이하	68	4.0294	.9615				
직업	농·수산업	136	4.0515	1.0207	2.447*			
	상업·서비스업	324	3.7870	1.0993				
	회사원	162	3.8765	1.0907				
	공무원	114	4.0088	1.0930				
	기타	59	3.6610	1.0925				

(* : p<0.05)

8) 소수자의 권리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대다수의 의견에 반대되는 견해를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주장을 내세운 결과 그렇다 27.4%, 그렇지 않다 30.8%, 잘 모르겠다 41.1%로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평균으로 살펴보면 3.04, 표준편차 1.1263으로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태도가 낮으며 합의수준도 낮다고 하겠다.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통합하는데 소수자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된다. 올바른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소수자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경변인별 반응을 살펴보면 성별($p<.05$), 학년별과 부모의 직업별($p<.01$)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여학생(3.12)이 남학생(2.95)보다, 6학년(3.17)이 5학년(2.91)보다 소수자의 권리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며 부모의 직업별로는 공무원(3.38)이 가장 높고 농·수산업(2.86)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9)민주주의 절차

민주주의 절차를 측정하기 위한 8개의 항목의 태도 점수를 합하여 평균점수를 구하고 이를 ‘민주주의 절차’라는 변수로 나타내었다. 민주주의의 절차적 원리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8개의 항목 중 결정의 사전 토의(3.55), 견해의 다양성(4.11), 비판의 수용(4.15), 다수결의 원리(3.87)에 대해서는 태도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경쟁의 필요성(2.84), 소수자의 권리(3.04), 양보와 타협의 태도(3.16)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엄격한 질서와 안정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경쟁이란 무질서와 불안정을 조장하는 계기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 같다.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태도의 평균은 3.26으로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4>에서 보듯이 성별로는 $p<.01$, 학년별과 부모직업별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3.31)이 여학생(3.22)보다, 5학년(3.33)이 6학년(3.19)보다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태도가 바르다. 특히 5학년이 6학년보다 절차적

원리에 대한 태도가 바른 것은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교육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부모의 직업별로는 농·수산업(3.38), 상업·서비스업(3.28), 회사원(3.27), 공무원(3.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3>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태도

N	M	SD	반응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800	3.0451	1.1263	12.0	18.8	41.8	16.5	10.9	0.1
배경변인			N	M	SD	t/F		
성별	남	384	2.9583	1.1645	2.042*			
	여	414	3.1208	1.0825				
학년	5학년	399	2.9123	1.0912	3.293**			
	6학년	399	3.1729	1.1442				
거주지	시지역	568	3.0792	1.1280	1.446			
	농어촌지역	230	2.9522	1.1146				
아버지학력	대졸이상	340	3.1176	1.1690	1.261			
	고졸	387	2.9922	1.1139				
	중졸이하	50	2.9600	1.0093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225	3.1556	1.1944	2.609			
	고졸	479	3.0104	1.0833				
	중졸이하	68	2.8235	1.1711				
직업	농·수산업	137	2.8686	1.1299	4.090**			
	상업·서비스업	325	2.9692	1.0711				
	회사원	161	3.0435	1.1421				
	공무원	115	3.3826	1.2325				
	기타	59	3.1864	1.0251				

(* : p<0.05 , **: p<0.01, ***: p<0.001)

<표 24>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태도 수준

N	M	SD	반응구분(%)							
			절차의 중요성	사전공개 토의	경쟁의 필요성	견해의 다양성	비판의 수용	양보와 타협	다수결 의원리	소수자 의원리
800	3.2686	.4617	3.2792	3.5532	2.8442	4.1118	4.1568	3.1660	3.8751	3.0451
배경변인				N	M	SD	t/F			
성별	남			385	3.3188	.4914	3.012**			
	여			414	3.2204	.4270				
학년	5학년			400	3.3388	.4574	4.399***			
	6학년			399	3.1967	.4551				
거주지	시지역			569	3.2581	.4571	.935			
	농어촌지역			230	3.2918	.4722				
아버지학력	대졸이상			340	3.2379	.4640	2.060			
	고졸			388	3.2726	.4663				
	중졸이하			50	3.3750	.3969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225	3.2239	.4727	1.298			
	고졸			480	3.2792	.4633				
	중졸이하			68	3.2978	.3894				
직업	농·수산업			137	3.3814	.4765	5.220***			
	상업·서비스업			325	3.2819	.4577				
	회사원			162	3.2724	.4361				
	공무원			115	3.1337	.4521				
	기타			59	3.1801	.4702				

(**: p<0.01, ***: p<0.001)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민주시민성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올바른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초등학교 5, 6학년을 중심으로 민주적 생활태도, 민주주의의 이념적 원리, 절차적 원리에 대한 태도에 국한하여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주적 생활태도에서는 서열의식, 성 역할에 대한 의식, 공존의 윤리, 공동체 의식, 가족주의 등 이상의 다섯 항목과 민주주의 생활태도에 대한 의식수준을 분석하였는데 민주적 생활태도에서 성 역할에 대한 의식(4.47)과 공존의 윤리(3.83)가 높게 나타났으나 서열의식(2.45), 가족주의(3.31)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민주와 권위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적 생활태도는 학년별로 유의한 차를 보여 5학년이 6학년 보다 민주적 생활태도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민주적 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서열의식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반응이 62.3%이고 부정적 반응이 19.9%이며 평균이 2.45을 나타내고 있어 전통적인 생활방식이 응답자들의 의식 저변에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서열의식에 대한 인식은 성별, 학년별로 유의한 차를 보여주고 있어 남학생이(M=2.35) 여학생(M=2.54)보다, 5학년(M=2.27)이 6학년(M=2.63)보다 서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권위적인 서열의식이 낮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둘째, 성 역할에 대한 의식은 긍정적인 반응이 87.1%이며 평균이 4.47이고 표준편차가 0.8017로 성 역할에 의식이 매우 높으며 합의수준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성 역할에 대한 의식이 여학생(M=4.67) 남학생(M=4.26)보다, 6학년(M=4.59)이 5학년(M=4.36)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아버지 학력별로는 대졸이상(M=4.57)이 성 역할 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의 직업별로는 공무원(M=4.66)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민주적 생활태도로서 공존윤리에 대한 태도는 69.9%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 8.3%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평균치 3.83이고 표준편차가 0.8911인 것에서도 응답자 대부분이 자기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 지역(M=3.88)이 농어촌 지역(M=3.73)보다 공존의 윤리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공동체 의식에 대한 태도는 평균이 3.49로 여학생(3.62)이 남학생(3.36)보다 규칙을 지키려는 태도가 강한 입장을 지니며 부모의 직업별로는 공무원(3.64) 규칙준수에 따른 공동체 의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가족주의에 대한 태도는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내 가족 밖에 없다.’라는 의견에 그렇다가 42.2%이고, 잘 모르겠다 42%, 그렇지 않다 15.4%로 평균은 3.31로 가족 중심적인 태도에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 주며 5학년이 6학년 보다 가족주의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고학년이 가족주의에 대한 태도가 낮은 것은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또한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3.52)가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 학력은 대졸이상(3.5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주주의 이념에서는 민주주의가 함축하고 있거나 추구하는 이념적 원리들에는 인간의 존엄성, 국민주권, 자유, 평등, 개인주의에 한정하여 그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를 측정 한 결과, 민주주의 이념은 3.96으로 전반적으로 민주주의 이념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인간존엄의 태도는 4.47, 평등 4.18, 자유 3.88, 국민주권 3.98로 네 원리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이념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에 개인주의 원리에 대해서는 2.64로 국가와 개인의 문제에서 국가를 우선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태도 수준이 6학년이 5학년보다 높은 것은 교육적으

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반응이 90.1%이고 부정적 반응이 2.1%로 긍정적인 반응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평균도 4.47으로 인간의 가치는 가장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집단간 유의한 차가 없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집단 모두에서 지지도가 높으며 민주주의 이념적 가치가 교육을 통해 국민의 의식에 내면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자유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반응이 64%이고 부정적 반응이 8.9%로 개인의 자유에 대해 찬성의 뜻을 나타내어 자유를 민주주의의 이념적 가치로 받아들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6학년(M=3.96)이 5학년(M=3.80)보다 자유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평등의 원리는 매우 그렇다가 53.4%, 대체로 그렇다 21.4%로 평균이 4.18으로 평등의 원리를 강하게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학생(M=4.26)이 남학생(M=4.10)보다, 6학년(M=4.29)이 5학년(4.08)보다 평등에 대한 태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계속되어온 민주시민교육의 결과라고 하겠다.

넷째, 개인주의에 대해서는 평균이 2.64를 나타내어 국가와 개인의 문제는 비교적 국가를 우선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충을 강조해 온 유교적 전통, 국가 또는 정부를 절대시해 온 국가중심주의 사상의 정치문화로 인해 개인주의원리에 대해서는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국민주권에 대한 인식은 긍정이 72.1%, 부정이 7.8%이고 평균이 3.98인 것으로 보아 국민주권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 응답자의 대부분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정부가 국민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의 절차에서는 민주주의 이념을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에 관한 절차적 규범은 중간절차의 중요성, 사전 공개토론, 경쟁의 필요성, 견해의 다양성, 비판의 수용, 양보와 타협, 다수결의 원리, 소수자의 권리 여덟 가지 원리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정의 사전 토의(3.55), 견해의 다양성

(4.11), 비판의 수용(4.15), 다수결의 원리(3.87)에 대해서는 태도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경쟁의 필요성(2.84), 소수자의 권리(3.04), 양보와 타협의 태도(3.16)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엄격한 질서와 안정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경쟁이란 무질서와 불안정을 조장하는 계기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 같다.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태도의 평균은 3.26으로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3.31)이 여학생(3.22)보다, 5학년(3.33)이 6학년(3.19) 보다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태도가 바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5학년이 6학년 보다 절차적 원리에 대한 태도가 바른 것은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교육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부모의 직업별로는 농·수산업(3.3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첫째, 토론절차에 대한 태도 평균은 3.27로 토론 절차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6학년(3.39)이 5학년(3.17)보다 중간 절차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중간 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은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둘째, 토론 절차에서 결정의 사전 토의에 대한 태도는 평균이 3.55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3.64)이 남학생(3.45)보다 6학년(3.64)이 5학년(3.45)보다 사전토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별로는 대졸이상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직업별로는 공무원(3.9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수산업(3.35)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경쟁에 대한 태도 2.84로 경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2.71, 여학생이 2.96으로 여학생이 경쟁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정하며, 5학년 2.76, 6학년 2.92로 5학년이 경쟁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쟁이란 무질서와 불안정을 조장하는 계기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 같다.

넷째, 견해의 다양성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 반응이 77%이고 부정적 반응이

4.8%이며 평균 또한 4.11로 높게 나타났고 표준편차도 0.8966으로 견해의 다양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합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주의란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경쟁을 하는 속성을 지닌다는 민주주의의 이념이 그만큼 내면화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섯째, 비판에 대한 수용성은 평균이 4.15이고 긍정적 반응이 81.4%, 부정적 반응이 5.7%로 비판을 수용하겠다는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남의 합리적인 비판을 수용하고 스스로도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양보와 타협에 대한 태도는 평균 3.16으로 양보와 타협에 대한 태도가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신을 강조하며 타협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대립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숙함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여학생(3.24)이 남학생(3.07)보다, 6학년(3.30)이 5학년(3.03)보다 양보와 타협에 대한 바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일곱째, 다수결의 원리에 대한 태도 긍정적 반응이 70.9%이고 부정적 반응이 13.3%이며 평균이 3.87로 다수결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별로는 농·수산업(4.05), 공무원(4.00), 회사원(3.87), 상업·서비스업(3.78), 기타(3.66) 순으로 다수결의 원리에 대한 태도가 바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태도는 평균 3.04, 표준편차 1.1263으로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태도가 낮으며 합의수준도 낮다고 하겠다.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통합하는데 소수자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하여 소수자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학생(3.12)이 남학생(2.95)보다, 6학년(3.17)이 5학년(2.91)보다 소수자의 권리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며 부모의 직업별로는 공무원(3.38)이 가장 높고 농·수산업(2.86)이 가장 낮다.

민주주의 이념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내면화되었으나, 경쟁, 타협, 소수자의 권리 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절차적 원리에 관한 인식은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 초등학생의 민주시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앞에서 종합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민주적 생활태도에서는 성 역할에 대한 의식과 공존의 윤리가 높게 나타났으나 서열의식, 가족주의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민주와 권위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여겨지며 민주적 생활태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가정, 대중매체 사회단체 등이 하나가 되어 민주시민교육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다.

둘째, 민주주의의 이념에서 인간존엄의 태도, 평등, 자유, 국민주권 네 원리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이념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어 민주주의 발전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으나 개인주의 원리에 대해서는 국가와 개인의 문제에서 국가를 우선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주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겠으며 이에 대한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이루어져야겠다.

셋째, 민주주의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풍토 위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념이므로 타협은 민주주의체도를 운영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의 상호 작용으로 다양한 견해를 비판과 타협으로 타협자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민주주의 이념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내면화되었으나, 경쟁, 타협, 소수자의 권리 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절차적 원리에 관한 인식은 미약하다. 이념적 가치가 내면화되었더라도 민주실천의 수준이 높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절차적 원리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다. 올바른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민주주의의 절차적 원리를 적용, 실천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학교에서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교육부(1997), 「사회과 교육」,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_____ (1998), 「초등학교교육과정 해설Ⅲ」, 교육부.
- _____ (2000),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_____ (2000),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_____ (1997), 「초등학교교사용지도서 사회 5-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_____ (1997), 「초등학교교사용지도서 사회 6-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김향원(1999), 「제주도민의 정체성」, 제주대학교출판부.
- _____ (1999), “학교생활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지도 방안”, 「백록논총」, 제주대학교출판부.
- _____ (2000), 「전환기제주의 의식과 제주정신」, 제주대학교출판부.
- 곽병선 외(1993), 「민주시민교육」, 서울:한국교육개발원.
- 박동서·김광웅(1989), 「한국인의 민주정치의식」, 서울대학교출판부.
- 신정현외(1987), 「민주시민교육론」, 탐구당.
- _____ (1992), 「현대 민주시민 교육론」, 서울:평민사.
- 이극찬(1983), 「민주주의」, 서울:법문사.
- _____ (2000), 「정치학」, 서울:법문사.
- 이정균(1997), 「민주주의론」, 서울:형설출판사.
- 전득주외(1992), 「현대민주시민교육론」, 서울:평민사.
- 전득주외(2000), 「정치문화와 민주시민교육」, 유풍출판사.
- 차경수(1998), 「현대의 사회과 교육」, 학문사.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1996), 「한국사회교육학개론」, 서울:교육과학사.

한국교육개발원(1990), 「고등학교 민주주의 교육 요구 조사」.

_____ (1994), 「민주사회 민주시민」.

Dewey, John (1916), 이홍우역(1996),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교육과학사.

Engle, Shirley H. / Annas. Ochoa(1986), 정세구역(1995), 「민주시민교육」,
서울:교육과학사.

<논문>

김성미(1988),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시민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
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왕근(1995), “시민성의 내용과 형식으로서의 덕목과 합리성의 관계에 관
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철호(1995), “濟州道 國民學生의 民主市民의 資質에 關한 調査 研究”, 석
사 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해성(1994), “시민사회의 도덕원칙으로서 합리적 이기주의와 그 가치-도
덕 교육적 함의”,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유병열(1991), “민주시민교육에서의 비판적 체계윤리에 관한 연구”, 박사학
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영희(1995), “국민학생의 민주시민 의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
학교 대학원.

이해주(1996), “사회교육 참여와 민주시민성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임만수(1998), “초등학생의 공동체적 시민의식 조사 연구-서울특별시 초등
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한승석(1991), “사회과 교육의 민주시민성에 관한 지식과 태도의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Abstract>

A Study on Democratic Citizenship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Jeju

Kang, Kyong-Hee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 Kim, Hang-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resources for educating primary grade students to democratic citizenship by survey research and its analysis. The survey for finding a level of democratic citizenship was done by a questionnaire for 800 students at 5th and 6th grade at a elementary school in Jeju province. The sampling data was analyzed by statistic program of SPSS/PC+. The responses of each question were measured by average (M), percentage (%) and standard deviation (SD). The statistic testing on differences of groups that have different background variables were done by testing and distribution calculated by average.

In the category of democratic life, the degree of the consciousness on role-play on gender and public ethic is high, as these points are 4.47 and 3.38 respectively. However, the degree of consciousness on the hierarchy and the selfish family is low, as these points are 2.45 and 3.31 respectively. The result shows democratic and authoritarian consciousness co-exist in the attitude of democratic life. The difference on the attitude of democratic life depend on grade, with the level of the 5th grade students being higher than that of the 6th grade students. So, a program should be prepared for practicing democratic life.

The degree on the democracy ideology is 3.96. It shows, generally, the students have democratic mind. The point of the human dignity is 4.47, that of the equality is 4.18, that of the freedom is 3.88 and that of the peoples sovereignty is 3.98. It shows that the students accept the four principles as basic ideology for democracy. The degree on the individualism principle is comparatively - low at 2.64. It illustrates that national interest takes precedence over private interests in the attitude of students. The level of democracy

ideology, for that of 6th grade students is higher than that of 5th grade students. This is very suggestive from an educational perspective.

The analysis in the category of democracy procedure, the point of pre-discussion for decision making is 3.55, that of opinion variety is 4.11, that of critics acceptance is 4.15, and that of decision by majority is 3.87. These levels are comparatively high. On the other hand, the point of competition is 2.84, that of minorities rights is 3.04 and that of yield and negotiation is 3.16. These levels are relatively low. The results demonstrate a social trend that stress strict order and security of society. It seems that students think the competition promotes disorder and insecurity. In addition, the average of male students in this field is higher than that of female students, as these points are respectively 3.31 and 3.22, while the degree of 5th grade students is higher than that of 6th grade students, as these points are respectively 3.33 and 3.19. The results, especially, the education program for teaching principles of democracy procedure should be prepared soon. The degrees of students consciousness for students whose parents work in agriculture and aquatic-products industry are at a relatively high level, as its point is 3.38 in this field.

I am currently exploring a way, based on the above results, how to promote the education of democratic civic ethic for primary student in Jeju province.

Firstly, in the category of attitude of democratic life, the awareness of role-play on gender perspective and coexistence ethic is in the high level. On the other hand, the hierarchical and selfish family consciousness is strong. So, democratic and hierarchical mind are co-exist. The result seems to be the reflection of reality in Korean society. So, cooperation of school, family, mass media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should take a step forward to promote the education program for the democratic civic ethic in the practice of democracy.

Secondly, in the category of democracy ideology, the students accept the four principles such as human dignities, equality, freedom and peoples sovereignty. It is a positive sign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However, national interest takes precedence over private interest, so an education program is necessary for cultivating an attitude of individualism. Also teachers sustainable interests and guidance is also requisite.

Thirdly, democracy base on the respect for different opinion can be developed. So, educational experiences of negotiation and critics as a reciprocal action between individual and individual, individual and organization, and organization and organization should be provided for autonomy to be achieved.

Fourthly, democracy is well internalized as an ideology for students, but the awareness of democracy procedure is not strong, such as competition, negotiation, and minoritys rights. This is why level of the democratic practices

is relatively low, although there is an evidence of internalization of democracy ideology. Therefore, an education for practice and application of democratic procedure should be provided in the school if we are to move further towards settlement of democracy.

초등학생의 민주시민성에 관한 설문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생각과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성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와 자기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설문 내용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내용은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성의있게 답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2. 2.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강 경 희

※다음의 설문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V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내용	매우 그렇 다	대체 로 그렇 다	잘 모르 겠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웃어른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웃어른의 말에 따르는 것이 좋다.	1	2	3	4	5
2	여자도 능력이 있으면 가정 외의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1	2	3	4	5
3	비록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한 약속은 모두 지켜야 한다.	1	2	3	4	5
4	보는 사람이 없을 때라도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은 요령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1	2	3	4	5
5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내 가족 밖에 없다.	1	2	3	4	5
6	모든 사람은 나와 똑같이 소중하다.	1	2	3	4	5
7	개인의 자유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보장되어야 한다.	1	2	3	4	5
8	사람들은 재산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1	2	3	4	5
9	국가를 위해 개인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1	2	3	4	5

번호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잘 모르 겠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 렇지 않다
10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정부는 국민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1	2	3	4	5
11	중간 절차야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1	2	3	4	5
12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여 토의하는 것보다 한 두 사람이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13	서로 경쟁하는 것은 마찰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1	2	3	4	5
14	나라 문제나 사회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당연하다.	1	2	3	4	5
15	나의 주장이 잘 못된 것임을 알면 용기있게 고치고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1	2	3	4	5
16	상대방에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보다 자신의 소신을 밀고 나가야 한다.	1	2	3	4	5
17	나의 생각과 달라도 많은 사람이 결정하면 이에 따른다.	1	2	3	4	5
18	대다수의 의견에 반대되는 견해를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1	2	3	4	5

※다음 중에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19. 성별: 남자 () 여자 ()
20. 학년: 5학년 () 6학년()
21. 거주지역 환경: 시지역() 농어촌 지역()
22. 아버지의 학력: 대졸이상(), 고졸(), 중졸이하()
23. 어머니의 학력: 대졸이상(), 고졸(), 중졸이하()
24. 부모의 직업 : 농·수산업(), 상업·서비스업()
회사원 (), 공무원(), 기타()

◆ 수고 하셨습니다. ◆